

2016학년도 수능대비

인터넷수능 A(이과)

고저 시가
변형 문제

 지인국어교육연구소

'알고 있는 것'이 '알게 하는 것'에 이바지해야 한다.

'잘 했다'보다는 '잘 하고 있다'를,

'잘 하고 있다'보다는 '잘 할 수 있다'를 더 중시한다.

'맞았다'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'틀리지 않는다!'는 것이 더 중요하다.

'눈'으로 문제를 풀거나 '머리'로 해결하기보다는 '생각'으로 풀어야 한다.

'많은 문제'를 풀기보다는 '집중력'을 발휘하여 '핵심'을 짚어내야 한다.

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.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. 수많은 관계 그리고 수많은 시공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바로 관계망입니다. 그 관계망을 알아야 합니다.

CONTENTS

e+PLUS 인수A 고전시가

인터넷수능A 고전시가 문제

고전시가 A-1 <작자 미상, '정읍사'>	4
고전시가 A-2 <작자 미상, '제망매가'>	8
고전시가 A-3 <작자 미상, '가시리'>	14
고전시가 A-4 <정인지 외, '용비어천가'>	18
고전시가 A-5 <정극인, '상춘곡'>	22
고전시가 A-6 <정철, '속미인곡'>	26
고전시가 A-7 <정훈, '탄궁가'>	32
고전시가 A-8 <김인겸, '일동장유가'>	36
고전시가 A-9 <정학유, '농가월령가'>	40
고전시가 A-10 <'백설이 잤아진~, 오백년 도움지를~, 까마귀 싸우는~>	44
고전시가 A-11 <주세붕, '오륜가'>	46
고전시가 A-12 <이순신, '진중음, 한산섬 달~>	50
고전시가 A-13 <'몽혼, 사랑이 거짓말이~>	52
고전시가 A-14 <윤선도, '어부사시사'>	56
고전시가 A-15 <'일신이 살자~, 한 눈 멀고~, 밝가벗은 아해~>	61
고전시가 A-16 <작자 미상, '초부가'>	66
고전시가 A-17 <작자 미상, '아리랑 타령'>	70

㉠달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
 아! 멀리멀리 비취 주십시오
 어귀야 어강도리
 아으 다롱디리
 시장에 가 계신가요
 아! 진 곳을 디딜까 두려워라
 어귀야 어강도리
 어느 곳에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
 아! 내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
 어귀야 어강도리
 아으 다롱디리

1. 이 노래의 내용상 추리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은?

- ① 남편이 행상을 나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.
- ② 아내는 남편이 해를 당할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.
- ③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.
- ④ 남편이 간 길로 아내 역시 따라가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.
- ⑤ 옛 여인들의 애틋하고도 정성스러운 남편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.

2.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.
- ②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.
- ③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향수가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.
- ④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도피하려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.
- ⑤ 자연물에 의탁해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.

3. 이 노래에 나타난 '달'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성숙과 충만의 이미지를 갖는다.
- ②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을 상징한다.
- ③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.
- ④ 화자의 소망을 들어 주는 매개체이다.
- ⑤ 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존재이다.

4. 이 작품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남편이 행상을 떠난 뒤에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.
- ② 아내는 남편이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.
- ③ 아내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다.
- ④ 아내는 자신의 갈 길이 험난할까 두려워하고 있다.
- 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간절한 그리움을 지닌 여인이다.

5. 이 노래의 '달(A)'과 <보기>의 '달(B)'의 차이점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은?

배꽃 가지 / 반쯤 가리고 / 달이 가네.
경주군 내동면 / 혹은 외동면
불국사 터를 잡은 / 그 언저리로
배꽃 가지 / 반쯤 가리고 / 달이 가네.
- 박목월, <달>

- ① A는 광명을, B는 어둠을 상징하고 있다.
- ② A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, B는 소원을 비는 대상이다.
- ③ A는 애상적 정서를, B는 행복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.
- ④ A는 소원을 비는 대상, B는 애상적 정서를 환기시키는 대상이다.
- ⑤ A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존재, B는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존재이다.

6. ㉠과 <보기>의 ㉡와의 차이를 말한 것 중, 가장 적절한 것은?

보기

순이, 벌레 우는 고풍(古風)한 뜰에
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.

㉠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.
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.

(중략)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.
- 장만영, <달 · 포도 · 잎사귀>

- ① ㉠은 광명을, ㉡는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한다.
- ② ㉠은 분리와 합일을, ㉡는 부활과 재생을 의미한다.
- ③ ㉠은 그리움의 대상이고, ㉡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다.
- ④ ㉠은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를, ㉡는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상이다.
- ⑤ ㉠은 소망과 기원의 대상이고, ㉡는 성숙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.

7. <보기>는 이 노래에 나타난 '달'에 대한 설명이다.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기

이 노래에서 달의 이미지는 원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. ① 달은 찼다가는 기울고 다시 차는 속성으로 분리와 합일, 충만함과 이지러짐의 이미지를 갖는다. ②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속성으로 소망과 기원의 이미지도 지니고 있다. ③ 이 노래에서 달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안전을 빌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달이다. ④ 더 나아가 부부의 인생 행로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의 상징이기도 하다. ⑤ 또한, 화자의 여유로운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.

8. 이 작품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남편이 행상을 떠난 뒤에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.
- ② 아내는 남편이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.
- ③ 아내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다.
- ④ 아내는 자신의 갈 길이 험난할까 두려워하고 있다.
- 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간절한 그리움을 지닌 여인이다.

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[가]

들하 노피곰 도드샤

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

어기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저재 녀러신고요

어기야 준 디를 드디올세라

어기야 어강도리

어느이다 노코시라

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

어기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- 어느 행상인의 아내, <정읍사(井邑詞)>

[나]

창(窓)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

들장지¹⁾ 열장지²⁾ 고무장지³⁾ 세살장지⁴⁾, 암돌쩌귀

⁵⁾ 수돌쩌귀⁶⁾, 쌍배목 외걸쇠⁷⁾를, 크나큰 장도리⁸⁾

로 똑딱똑딱 박아 이내 가슴 창 내고자

임 그려 하 답답할 제면 여단어나 볼까 하노라.

- 작자 미상

[어휘 풀이] 1) 들장지 : 들어 올려 매달게 된 장지(‘장지’는 ‘방에 칸을 막아 끼운 미닫이. 미닫이와 비슷하나 문두가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된 문’을 말함.) 2) 열장지 : 좌우로 열어 젖히게 된 장지. 3) 고무장지 : 고무래 장지. 고무래 들창. 4) 세살장지 : 가는 살의 장지. 5) 암돌쩌귀 : 문설주에 박는 구멍난 돌쩌귀. 6) 수돌쩌귀 : 문 짝에 박는 돌쩌귀. 7) 외걸쇠 : 문고리에 끼는 쇠. 8) 장도리 : 못을 박거나 뽑는 데 쓰는 도구.

9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.
- ②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.
- ③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.
- ④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⑤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.

10. 다음은 <보기>의 해설을 참고하여 (가)를 감상하기 위해 마련한 생각거리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기

(가)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아내가 불렀다는 백제의 노래이다. 아내는 산 위에 올라 이 노래를 부르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.

- ① 남편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?
- ② 아내는 왜 달을 빌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?
- ③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?
- ④ 아내는 망부석이 되면서까지 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일까?
- ⑤ 행상 나간 남편은 그 당시 백제인의 보편적인 삶을 대신할 수 있을까?

11.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반복과 열거를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.
- ② aaba 구조와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.
- ③ 구체적인 사물들을 열거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④ 추상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구체화한 발상이 기발하다.
- ⑤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켜 답답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
▣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[가]

들하 노피곰 도드샤

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.

어기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저재 녀러신고요

어기야 ㉠즌 ㉡를 드디올세라.

어기야 어강도리

어느이다 노코시라.

어기야 내 가는 ㉢ 점그를세라.

어기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- 작자 미상, <정읍사>

[나]

열치매

나타난 ㉣달이

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?

㉤새파란 나리에

기랑(耜郎)의 모습이 있어라.

일로 나리 ㉥조약에

낭(郎)의 지니시던

마음의 끝을 좇누아져

아아, ㉦갯가지 높아

㉧서리 모스시울 화반(花判)이여.

- 충당사, <찬기파랑가>

12. [가]와 [나]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조(情調)는?

	[가]	[나]
①	기다림	기원
②	기원	예찬
③	회한	예찬
④	회한	풍자
⑤	기다림	예찬

13. 내포적 의미가 ㉠과 가장 유사한 시어가 들어 있는 것은?

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

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
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.

② 버는 가을 하늘에도

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
바람 한 점에도 / 제 몸의 노여움을 뒀는다.

③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

자칫 가느린 길이 이어가라. / 나는 나아가리라.
한 걸음,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
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……산경(山耕)을 김
매는

④ 삼삼오오(三三五五) 야유원(冶遊遠)에 새 사람
나단 말가

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(定處) 업시 나가 있어

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(仙鶴)이 샷기 치니,

춘풍(春風) 옥덕성(玉笛聲)에 첫 즈음 잤던지

14. ㉣~㉧ 중 기파랑의 원만한 인품을 상징하는 시어는?

① ㉣

② ㉤

③ ㉥

④ ㉦

⑤ ㉧

생사(生死) 길은
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,
 나는 간다는 말도
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.
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
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,
 한 가지에 나고
 가는 곳 모르온저.
 아아, 미타찰(彌陀刹)에서 만날 나
 도(道) 닦아 기다리겠노라.

15. 이 노래를 감상한 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. 그러므로 인생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② 구도하는 자세로 성실히 살다 보면 종교적 차원의 초월에까지 이르게 된다.
- ③ 현실과 이상은 동떨어진 존재이므로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.
- ④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므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.
- ⑤ 세상은 부조리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신으로 순화시켜 나가야 한다.

16. 이 노래를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?

- ① 죽음에 대한 두려움/ 원죄에 대한 비애/ 미래의 기약
- ② 죽음에 대한 두려움/ 야속함에 대한 원망/ 미래의 기약
- ③ 누이에 대한 그리움/ 인간 존재의 허망함/ 종교적 귀의 결심
- ④ 허무주의적 인생관 피력/ 현세에 대한 부정/ 영원 회귀의 다짐
- ⑤ 누이에 대한 그리움/ 슬픔의 고조 및 삶의 무상감/ 슬픔의 종교적 승화

17.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.
- ② 불교적 세계관에 의한 절망적 어조로 되어 있다.
- ③ 인생의 무상함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.
- ④ 고유 문자가 없었던 시기의 차자(借字) 표기가 드러나고 있다.
- ⑤ '4+4+2행'의 구조로서, 마지막 부분에 시상의 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.

18. 이 글을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마지막 두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내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.
- ② '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떠딜 님'으로 누이가 요절했음을 추측할 수 있어.
- ③ 3구의 '나'와 9구의 '내'는 모두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의 정서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.
- ④ '흐든 가재 나고'는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.
- ⑤ 화자의 정서가 '두려움'에서 '안타까움'을 거쳐, '허무함'에 이르렀다가 '극복 의지'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.

19. 이 노래의 내용에 비추어 화자가 누이에게 하고 싶은 말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어찌 이렇게 비명(非命)에 갇단 말인가?
- ② 네가 간 저승이 어디이길래 이렇게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가?
- ③ 너마저 죽어 저승에 가버리다니 이제 난 어떻게 할 것이며,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?
- ④ 우리 언젠가 만날 날이 있으리니 이 오빠는 그 날까지 열심히 수양 정진하며 기다리겠노라.
- ⑤ 한 부모에게 난 피붙이임에도 이렇게 가버리다니 삶이란 죽음이란 도대체 뭇이란 말인가?

20. 이 노래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?

- ① 개인적인 슬픔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.
- ② 슬픈 감정을 직접 토로하여 정서적인 정화를 추구한다.
- ③ 철학적 사유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해탈하려 한다.
- ④ 세속적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.
- ⑤ 개인적인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다 종교적인 의지로 극복하고자 한다.

21. 이 노래와 시작(詩作)의 동기가 다른 작품은?

- 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/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, /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/ 아아,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.
-정지용, '유리창'
- ②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/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, //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/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..
-김현승, '눈물'
- ③ 울엄매야 울엄매, / 별밭은 또 그리 멀리 /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/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.
-박재삼, '추억에서'
- ④ 관이 내렸다. /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. / 주여, / 용납하옵소서. / 머리말에 성경

을 엮어 주고 /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/ 좌르르 하직했다.

-박목월, '하관'

- ⑤ 오오 봄 아침에 구슬프게 우는 비둘기 / 죽은 그 애가 펴으나도 설게 듣던 비둘기 / 그 애가 가는 날 아침에도 꼭 저렇게 울더니

-이광수, '비둘기'

22. 위 시와 <보기>의 공통된 점으로 적절한 것은?

산이 저문다
노을이 잠긴다
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
애가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
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

한밤중에 바람이 분다
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
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
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

먼- 들길을 애기가 간다
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
불러도 대답이 없다
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

- 김광균, <은수저>

- ① 종교적 승화를 통한 절망의 극복
- ②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
- ③ 대상과의 재회를 위한 화자의 다짐
- ④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존재
- ⑤ 삶의 고통을 벗어난 이상향으로의 도피